

현장의 진실을 중앙에 두다 | 2026년 2월 19일 목요일

# 설 연휴 댔친 '6주택 vs 재건축'

〈장동혁 보유 집〉

〈이 대통령 분당 집〉

이 대통령·장동혁, SNS 부동산 설전  
대통령, 장동혁 6채 보유 기사 올라  
“나쁜제도 만든 정치인들이 사회악”  
장 “대통령, 분당 50억 재건축 로또”  
국힘 “집 안 파는 대통령이 사회악”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맞는 설 연휴, 정치권은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부동선 논쟁으로 뜨거웠다. 영화 관람을 제외 하곤 외부 일정을 잡지 않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을 겨냥한 부동선 메시지를 이틀에 한 번꼴로 내자 장동혁 국민의 힘 대표도 이 대통령 소유 경기 분당 아파트를 고리로 맞불을 놓았다.

공세에 나선 건 이 대통령이었다. 이 대통령은 16일 X(옛 트위터)에 “국민의 힘은 작은 땅덩이에 수도권 집중까지 겹쳐 부동산 투기 요인이 많은 대한민국에서 소수의 투자투기용 다주택 보유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라며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분당 아파트와 장 대표의 주택 6채 보유를 다룬 언론 보도를 첨부했다.

그러자 장 대표도 즉각 페이스북에 집 6채 중 농가 주택엔 95세 노모가 실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이 X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새 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의 6채를 다 합쳐도 실거래가는 8억5000만원 정도다. 장 대표는 17일엔 “정작 대통령은 퇴임 후 50억원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분당



**42세 테일러, 청각장애 아들에 수화로 금 소식** 미국 봅슬레이 선수 엘라나 메이어스 테일러(42·오른쪽)가 17일(한국시간) 여자 1인승 정상에 오른 뒤 지친 모습을 보인다. 테일러는 청각장애 아들이자 동생인 니코(왼쪽)와 함께 금메달을 차지했다. 테일러는 2014년 소치 올림픽에서 4인승 봅슬레이에서 은메달을 딴 바 있다. 니코는 테일러의 아들인 니콜라스 테일러(17)의 별명이다. 니콜라스는 테일러의 아들인 니콜라스 테일러(17)의 별명이다. 니콜라스는 테일러의 아들인 니콜라스 테일러(17)의 별명이다.

재건축 로또를 갖고 계시지 않느냐”고 역공을 폈다. 이 대통령이 1998년에 구입한 경기도 분당 소재 아파트가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포함될 걸 겨냥한 것이다.

그러자 양당에선 이 대통령의 '분당 재

건축 이파트'와 장 대표의 '6주택 보유'를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에선 "아무리 집 6채를 보유하고 싶더라도 노모의 생사까지 운운하면 진짜 불효자식"(박지원 의원), "그 분노가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주택 6채'를 지키기 위한 것인가."

가”(재현일 의원)라고 공세를 취했다. 국민의힘도 물러서지 않고 “집 팔라고 국민은 험박하면서, 뽕뽕한 한 채 안 내놓는 대통령이야말로 진짜 사회악 아닌가”(윤희숙 전 의원)라고 했다. 오현석·류효림 기자

▶ 4면 ‘부동산’으로 계속

## The JoongAng Plus

헬스+ >> 17면

핫도그 1개, 건강수명 36분 줄어  
담배보다 치명적인 '가짜 음식들'

컬처 » B5면, 스포츠 » B6·B7면

### 정은경 “가당음료에 설탕부담금…저소득층 비만예방에 쓸 것”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포부담금은 종량(세) 방식으로 가당음료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련된 자원은 저소득층·청소년 비만 예방 및 치료에 투자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의대 증원 방안과 관련, “지역 맞춤 교육 수련을 통해 정착을 돕겠다”고 했다. **▶ 관계기사 16면**

16면



▶▶ 8면 '윤 선고'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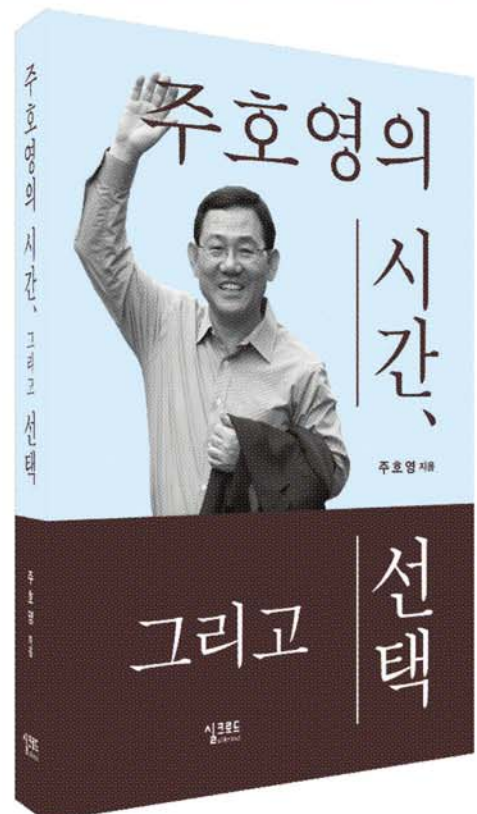
# 주호영의 시간, 그리고 선택

주호영의 22년  
정치 여정,  
소리 없이 강했던  
결단의 시간들!

주부의장이 나와 공통점이 많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다. 특히 매일 새벽 어김없이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은 아들들에게 큰 용기와 책임감이 되었을 것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주호영 의원은 무척 달랐다. 언제나 정의와 진실의 편에 서면서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배려가 몸에 배어 있었다. 정당하게 타협하고 합의를 끌어내는 능력을 갖췄다. - 김형오 전 국회의장

주호영 의원과 같은 합리적 보수만이 국민적 지지와 국가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 진정으로 보수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바로 주호영 의원이라고 확신한다. -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예스24, 교보문고,  
영풍문고 등 서점에  
있습니다.

432페이지  
값: 35,000원

**시크로드**  
silkroad  
031-955-6333